

이카이노가 남긴 비애, 차별, 아픔의 기억

제주출신 조지현 사진전
포지션 민 제주 기획초대
일본 '오사카의 작은 제주'
"자이니치는 과연 누군가"
1965년부터 5년간 촬영



조지현 작가가 흑백필름으로 촬영한 1960년대 일본 오사카 이카이노의 골목길 풍경.

지난 2월 제주 출판사인 도서출판 각에서 번역 출간한 사진집 '이카이노(猪飼野)-일본 속 작은 제주'에 수록된 작품들이 전시장에 나왔다. 도서출판 각 사무실과 이웃한 포지션 민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조지현 사진전이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태생의 조지현 작가(1938-2016)는 제주4·3 시기에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다. 그가 '오사카의 제주도'로 불리는 이카이노를 촬영한 해는 1965년부터 5년간이다. 이카이노는 일제강점기 먹고 살기 위해 바다를 건너 제주 사람들이 하나둘 등지를 틀기 시작했고 4·3의 광풍을 피해 제주인들이

난민으로 도피했던 피란처였다. 그곳은 1973년 2월 행정상 명칭이 사라진다. 1970년대 들어 주변 거주자들이 땅값과 집값이 내려가고 혼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폈고 끝내 인접한 지역과 통합하며 이카이노라는 지명이 삭제됐다. '청년 사진가 조지현'은 오사카

지도에서 그 이름이 증발되기 직전에 '이카이노의 오늘'을 생생하게 포착해냈다. 흑백필름 살 돈이 넉넉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자이니치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되물으며 떠나없이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던 이카이노의 거리를 누볐다.

초반엔 골목길 풍경을 촬영하다 물벼락이 맞거나 어느 조직의 간첩으로 오해받아 촬영한 필름을 빼앗길 뻔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사진을 안 찍고 구석구석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지냈다. 시간이 흘러 차츰 멈춰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어갔고 비로소 이카이노가 그의 카메라 안으로 들어왔다.

사춘기 10년을 이카이노에서 보낸 조 작가는 생전에 "제주도와 이카이노에서의 기억은 내 사진 표현의 원점이자 모티브이고 주제였다"고 했다. 그는 "갑수성이 많았던 소년기에 이카이노에서 맛보았던 비애와 사춘기에 경험했던 차별의 기억은 치유되지 못한 채 마음 한 구석에 아픔과 굴욕으로 남아 있었다"는 말로 이카이노가 카메라가 향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포지션 민 제주의 세번째 기획 초대전으로 지난 6일 막이 올랐다. 전시는 이달 17일까지, 개막 행사는 10일 오후 7시에 마련된다. 전신회기자

이번주(9월 9일~ 15일) 무대 & 미술



미술협회서귀포지부 고순철의 '빗창'.

서귀포 앞바다 생의 파고를 넘으며

서귀포미술협회 기획전시
해녀문화 소재 '들숨날숨'

서귀포 앞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의 삶이 전시장에 잠시 머문다. 한국미술협회서귀포지부가 2019 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 지원 사업으로 마련한 '들숨날숨' 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강경훈 고상을 고순철 고영우 김미령 김혜숙 명연숙 박성배 박순민 선우경애 오민수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서귀포미술협회 회원들은 그림, 조각, 서예 등으로 내놓은 생의 파고를 넘으며 서귀포의 아이들을 길러온 어버, 할망 해녀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공연>
▶행복나눔 기부음악회-법화불음봉사단 주최 9월 9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010-3696-9067.

▶제주콘서트콰이어 정기연주회=9월 10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2019제주학생음악콩쿠르 입상자 연주회=9월 11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8663-7696.

▶춤의 향연-춤으로 하나 되어 =국립제주박물관 토요일관 산책 프로그램으로 9월 14일 오후 5시 박물관 강당. 720-8035.

▶제3회 제주클라리넷 페스티벌=9월 15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9725-1589.

<전시>
▶이승현 개인전 '한글그림에 아리랑을 담다'=9월 9일부터 27

일까지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갤러리둘하나. 728-1530.

▶2019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작 초청전=9월 12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주수채화협회 회원전=9월 14-19일 문예회관. 710-7633.

▶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정기전=9월 14-19일 문예회관. 710-7633.

▶제주선인들의 작품과 서예법첩과의 만남=한연회 주최 9월 14-19일 문예회관. 710-7633.

▶들숨날숨=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010-2690-3004.

▶바다숲-제주 옛바다와 산호=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제주 웅기미술관. 개막 행사는 9월 15일 오후 3시. 010-4408-9074.

▶제주도 신당 사진전=9월 15일까지 아아 갤러리. 800-9331.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제주작가 조명전 '99+1'=9월 15일까지. 710-4273.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마련 미술품 판매전 '카페 디엠-오늘을 즐겨라'=9월 15일까지 기당미술관. 733-1586.

▶임춘배 개인전 '4월의 단상'=9월 15일까지 4·3평화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 723-4344.

▶김애란 초대전=9월 15일까지 현인갤러리. 747-1500.

▶송기수의 '제주를 담다'=9월 15일까지 거인의정원. 759-5759.

▶현대미술작가협회전=스페이스 에나르 갤러리 초대로 9월 15일까지. 772-4280. 전신회기자

제주 오승철 시조시인 고산문학대상

수상작 '오키나와의...'
"평의 울음에 민족의 한"
내달 10일 해남서 시상식



문학대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황지우)는 지난 1년 동안 출간된 시집을 대상으로 현대시와 시조 부문에서 100여 명의 시인, 평론가들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벌였고 그 결과 현대시는 나희덕 시인의 '파일명 서정시'(창비), 시조는 오승철 시인의 '오키나와의 화살표'(황금알)를 수상작으로 가려냈다.

'오키나와의 화살표'는 오래된 장르인 한국시조문학이 오늘의 독자들에 읽히고 사랑받기 위해 동시대성에 치열하게 직면해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공유된 명제에 조응한 시조집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제주도민의 한이 서려 있는 4·3 사건의 아픔과 의미를 형상화하면서도 그것을 우리 민족이 걸어온 파행적인 현대사의 아픔으로 보편화하고 승화시킨 시의식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며 "특히 '평의 울음'을 하나의 상징으로 승화시킨 성과도 주목되었는데, 마치 억눌린 감정을 더 이상 어찌지 못해 토해내는 듯 그 탁하고 둔중하며 돌발적인 평의 울음소리를 식민지와 분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산과 유랑을 경험하고,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학살과 희생의 감내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영혼과 한에 대한 상징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고 평했다.

오승철 시인은 '절벽에 선 독수리의 마음으로'란 제목을 단 수상 소감문에서 "고산 선생의 정신을 받들어 무던 시의 날을 버리려 합니다. 절벽에 선 독수리의 마음으로 가겠습니다"고 했다.

오 시인은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지금까지 네 권의 시조집을 냈다. 한국시조작품상, 이호우시조문학상, 유심작품상, 중앙시조대상, 오늘의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전신회기자 sunny@ihalla.com

신성여고 전국청소년연극제 4관왕

단체 부문 장려상 수상
개인 연기·지도교사상

결쳐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번 전국 청소년연극제는 8월 27-9월 6일 충남 예산군 문예회관 등에서 열렸다. 충청남도, 예산군, 한국연극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연극협회 예산지부가 주관해 지역 예선을 거친 전국 18개 학교가 참여해 열린 경연을 벌였다. 지난 1일 제주 대표팀으로 무대에 오른 신성여고는 '작은 할머니'(엄인희 작)를 공연했다. 일제강점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네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한 많은 삶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신성여고는 경연 결과 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우수지도교사상(이정일), 최우수

연기상(강민주), 우수연기상(윤여름)을 잇따라 받았다.

전국청소년연극제 제주예선을 주관했던 제주연극협회는 "지난해 영주고등학교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신성여고에서 4관왕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며 "제주도 연극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고 했다.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가 제23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단체 부문 장려상 등 4개 분야에

제8회 위미초등학교 동문가족 한마음축제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여 동문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8회 위미초등학교 동문가족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9월 14일 (토요일) 10시 <사전경기는 8시부터> ◆ 장 소 : 모교 운동장

주요 행사

- 팀별경기
- 번외경기 (노인회, 부녀회)
- 노래자랑 등

팀구성 (4개팀)

- ▶백두팀 : 1, 5, 9, 13, 17, 21, 25, 29, 33, 37, 41, 45, 49, 53, 57, 61, 65회
- ▶한라팀 : 2, 6, 10, 14, 18, 22, 26, 30, 34, 38, 42, 46, 50, 54, 58, 62, 66회
- ▶금강팀 : 3, 7, 11, 15, 19, 23, 27, 31, 35, 39, 43, 47, 51, 55, 59, 63회
- ▶태백팀 :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회

후원 : 위미초등학교, 위미리·2리·3리·신례2리 마을회

위미초등학교 총동문회장 김충범
한마음축제 집행위원장 고권철 拜上